대한지리학회지 제35권 제2호 2000 (243~258)

지역연구의 특성과 지리학과의 관계

金 熙 順*

The Characteristics of Area Studies and their Relationship to Geography

Kim, Hee Soon*

요약 : 지역연구는 해외지역연구(foreign area studies)의 준말로, 연구자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권 혹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학제적인 연구이다. 지역은 시대와 정의자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인지개념으로 세계지역, 문화지역, 국가단위지역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지역연구는 192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전쟁 전에는 유럽지역이 지역연구의 주요 대상지역이었으며 전후 냉전시기에는 제3세계가, 그리고 현재는 전세계의 모든 지역이 연구지역으로서 주요한 가치를 지닌다. 지역연구는 정책지향적이고 학제적인 연구이며 현장연구를 중요시하는 특성을 지닌다. 지역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분야의 학위와 현지언어 능력, 광범위한 지역 지식, 현장 경험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분과학문과 지역에 대한 관심의 균형 문제가 분과보편주의와 지역특수주의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 지역연구의 목적이 희석되기도 하였다. 지리학은 몇가지 이유로 인해 지난 몇 십년간 지역연구에 대해 비교적 관심을 덜 가졌다. 그러나 지리학자는 공간 상호작용의 분석과 자연환경에의 접근 등을 통하여 지역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연구의 큰 목적 중의 하나인 지역성 구명의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주요어 : 지역연구, 지역, 정책지향성, 학제성, 현장연구, 분과보편주의, 지역특수주의

Abstract : Area studies are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a defined area. The area is primitively foreign one to the researcher and it is a 'specific region' and the conceptual concept which is variable by time and definers. The modern area studies started from the 1920's in the U.S. and World War II brought acceleration in and enthusiasm for it. Area studies have three features; first, in many countries the topical and disciplinary focus of area studies is determined by the interests of public policies; second, area studies are by nature inter-disciplinary or multi-disciplinary, that is to say, area studies require the co-operation of scholars interested in the area concerned, whatever their affiliation by subject, department, or faculty is; third, area studies should be based on the field works, in-country experiences.

The area specialists can be defined as someone who devoted all or a substantial portion of his or her professional career to the study of another country or region of the world. They need several elements including the degree of specialization, the language competency, the broad factual knowledge about the area and the in-country experience. Geographers can contribute to area studies by his concern with space, spatial relations and the assessments of the natural environment.

Key Words : area studies, area, inter-disciplinary, area specialist

1. 서 론

최근 국내 학계에서 지역연구[1]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온 지리학뿐 아니라 인류학, 언어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여러 사회과학과 인문학 분야에서 지역연구물들이 발표되고 있다. 또한 기존 지역연구센터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한편 새로운 지역연구소들이 속속 생겨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심의 고조는 세계가 점점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면서 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국가의 외교·무역 등 실리적인 면에서 중요해진 것에 기인한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20세기 들어 지속되어 온 학문의 전문화, 개별화에 대한 대안으로

* 고려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Graduate Student in Doctoral Program, Department of Geography, Korea University)

서 학제성을 지향하는 지역연구가 제시되고 있는 것도 한 이유이다.

지역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실용적인 필요성에 따라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발생 시기와 동기, 주요 연구 대상과 학문으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으며 지역연구에 대한 이론적 정립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실제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지역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지역연구가 도입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여러 분야에서 지역연구물이 나오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지역연구가 학제성을 그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지역연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줄곧 강조되어 왔으며 이는 지역연구가 다른 학문들에 대해 갖는 큰 특성이기도 하다.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개별 분과학문의 지식이 문제의 단편적인 면을 깊이 있게 관찰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하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는 반성하에 출발한 학문적 접근방법이 지역연구이다. 즉, 지역연구는 19세기 이후 개별화, 고립화되어가는 학문들, 특히 사회과학의 그러한 경향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의 모색이다.

또한 지역연구는 한 지역에 관한 지식을 수집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의 문제는 경제, 정치, 문화, 역사, 지리적 요소를 골고루 갖춘 것이다. 즉 지역연구가 학제성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는 지역의 문제·현상이 학제성을 띠기 때문이다. 이는 타학문에 비해 종합과학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 지리학이 지역연구를 수행하는데 보다 적합한 이유가 될 수 있다.

IMF 이후 국내 경제사정의 악화로 해외지역에 대한 열기가 주춤한 듯하나 이런 시기에 지역연구를 체계적으로 재고찰해 보고 나아가 지역연구에서 지리학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인식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지역연구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그 정의, 그리고 그와 혼용되는 유사정의들을 구분하고 지역연구의 발달과정과 특성, 지리학과 지역연구의 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지역연구와 지역의 정의

1) 지역연구

본고에서 다루는 지역연구(area studies)는 엄밀히 '해외지역연구('foreign area studies' 혹은 'foreign area research')'라 할 수 있다. 지역연구는 '타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타자성(otherness)'에 대한 해명과 이해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지역 인식 방법이다(矢野暢, 1993). 다시 말해 연구자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권 혹은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제적인 연구이다. 따라서 우리글로 역시 지역연구라 번역하는 'regional studies', 'study of area'와는 그 의미가 약간 다르다. 1943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가 'area studies'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였고 1947년 지역연구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Hall의 『*Area Stud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ir Implication for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s*』가 출판된 후 지역연구(area studies)라는 용어가 학계에 정착되었다.

지역연구에 대한 여러 학자의 정의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국제사회과학사전(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에서 Wood (1998)의 견해를 살펴 보면, 그는 "지역연구란 어떤 개념(여기서의 어떤 개념이란 연구대상인 지역을 말한다)에 입각해서 지역센터라고 불리는 기관의 지원하에 수행되며 어느 정도의 학문적 협동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지역연구의 기본적 출발점은 경계 가능한 지리적 구역에 살면서 그들의 사회와 환경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집단은 학문적 고찰의 적절한 단위가 된다"는 것이다. 이 사전의 연대가 지역연구의 본격적인 발전기로 보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20여년이 지난 것임에도 지역연구가 무엇이며 그 특징이 어떠한지에 대한 명쾌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이는 지역연구가 그 발전기에도 실용적인 목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당시의 연구자들은 그 정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

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전술한 Hall의 논문에서도 지역연구 발달의 배경, 현황, 지역연구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 등을 다루었으나 정작 지역연구에 대한 정의는 내리지 않았다(Hall, 1947). 지역연구의 정의 및 방법론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그로부터 훨씬 후에야 이루어졌으며 지역연구의 거대한 연구성과에 비해 매우 미미하였다.

지역연구는 그 정의에 대한 모색보다는 그 목적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졌다. Hall은 지역연구의 목적으로서 네가지 사항을 들고 있다. 이는 첫째,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대한 현재의 지식을 확보하는 것, 둘째, 협동적인 연구의 실현과 지식의 통합, 셋째, 비교문화적인 이해의 증진, 넷째, 사회과학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Wagley는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으로 나누어 지역연구의 목적을 제시하였는데,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사회과학 분과들의 협력, 문화적 상대주의에 대한 인식의 심화, 비서구 지역 학자들의 참여를 통한 사회과학의 보편화 등을 들었다. 그리고 실천적 측면에서는 국제이해의 증진, 국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가적 관점에서의 과학과 학문의 지원을 제시하였다(Wagley, 1948; 김경일, 1998b에서 재인용).

지역연구에 대한 정의를 살펴 보면, 우선 지리학자인 Farmer는 "지역연구란 정의된 지역, 예를 들어 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 혹은 라틴아메리카 등에 대한 다학문적이거나 학제적인(multi-disciplinary or inter-disciplinary) 연구"라고 정의하였다(Farmer, 1973). 최근에 지역연구가 다시 활기를 띠면서 이에 대한 정의도 다시 모색되고 있는데, 야노토루(矢野暢)는 "지역연구란 인문과학, 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어느 분야든지 제3세계 모든 지역의 성립 또는 그 곳의 인간의 삶에 대하여 어떤 지역의 전체상 혹은 개별적 국면을 대상으로 실증적 방법에 의해서 해명을 시험해 보는 학술적 연구"라고 정의하였다(矢野暢, 1993). 그는 이에 더하여 "지역성을 성립시키는 고유한 논리를 분명히하고 세계적인 시야로 그 지역성과 고유성을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이 지역연구의 본질"이라고 하였다. 한편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는 지역연구를 "다른 나라, 지역(구역)에 대한 연구, 해당국가나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이해에 기초를 둔 연구, 정책적인 함의가 큰 연구"로 규정하였다(권태환, 1998). 이 정의는 우리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지역연구가 정책지향적 성격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지역연구와 지역학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두 개념은 엄밀히 구분되어야 한다. 지역학은 지역연구로 발전하기 이전 단계로 현지 언어능력이나 현지 체류경험이 있는 사람이 학문분과적 특수성의 구속을 받지 않고 전공 지역 또는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연구과제를 다루는 것이다. 서양이나 일본에서도 지역연구가 시행되기 이전에 지역학이 발달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연구(China Studies)가 발전하기 이전에 중국학(sinology)이, 소련연구(Soviet Studies) 이전에 소련학(sovietology)이 이루어졌다(신윤환 · 이성형, 1996).

또한 지역연구는 비서구국가가 주요 대상국이라는 점에서 비서구연구(Non-Western Studies), 해외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제학(International Studies)과 혼용되기도 한다. 비서구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 아프리카 · 라틴아메리카의 신흥 독립국가들의 출현으로 이들 문명과의 상호작용과 상호이해가 중요하게 되었다는 자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 정의는 서구교육의 관례적 유형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던 인간행동의 부문들과 인간 경험의 해석들에 대한 관심이다. 한편 국제학은 자신들과는 명백히 다른 역사와 문화 및 사회 제도들을 가지고 있다고 전통적으로 간주해 왔던 세계의 다른 부분에 대한 탐구로서 국제적 관계를 중요시한다(김경일, 1998a). 양자 모두 지역연구와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 분야들이다. 그러나 많은 수의 지역연구가 비서구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지만 지역연구의 '타자성'이 반드시 '서구중심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서구연구와 지역연구는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제2차 대전기와 냉전기에 걸쳐 국제관계가 지역연구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졌지만 지역연구와 국제학을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2) 지역의 정의와 지역구분

지역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는 '지역(area)'은 근본적으로 지리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리학에서 사용하는 '지역(region)' 개념과는 차이점이 있다. 지역연구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연구자에게 '이국의 것'이다. 또한 '일반지역(generic region)'이라기 보다는 '특수지역(specific region)'이다. Hartshorne에 의하면 '일반지역'의 연구는 입지와는 상관없이 공간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려는 것이고, 반면에 '특수지역'의 연구는 세계를 주요 부분으로 분류하고, 이들 주요부분을 서로 인접하고 있으며 함께 전체를 구성하는 하류 부분으로 다시 나누는 것이다(Hartshorne, 1939, Cahnman, 1948에서 재인용). '일반지역'은 한가지 요소로 특징지워지고 일반화와 법칙의 측면에서 연구되는 반면 공동체·국가·문화지역 등의 '특수지역'은 다수의 상호연관된 요소에 의해 특징지워지며 전체성과 고유성의 측면에서 연구된다. 일반지역연구는 광범위하게 분류된 지역들의 유사성을 밝히는 반면 특수지역연구는 이러한 유사성이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특수지역연구에서는 한지역의 입지와 상대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고유 특성 중의 하나이며 이는 다시 다른 고유 특성들을 상당한 정도까지 변형시킨다. Cahnman은 지역연구에서 다루는 이러한 특수지역을 '사회적 장(social field)'의 개념을 통하여 설명하였다(Cahnman, 1948).

또한 지역연구의 지역구분은 편의적이고 임의적이다. Wallerstein은 지역연구의 지역(areas)을 어떤 전제된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언어적인 밀착성을 가진 커다란 지리적인 구역으로 보았다(Wallerstein, 1996). 따라서 지역은 한 국가 내의 작은 지역으로부터 여러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적인 지역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의 이해관심에 따라 연구 지역이 설정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통상적으로 세계 지역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도 그 구분이 변하기 쉽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연구의 '지역'을 인지 주체의 이해관심에 따라 그 정의가 변하기 쉬운 인지개념(conceptual concept)으로 인식하는데, '지역'은 국가일 수도 있고 문화지역일수도, 생태 단위일수도 있고 혹은 이런 것들의 부분적 구획일 수도 있다(Wagley, 1948; 矢野暢, 1996에서 재인용).

또한 세계를 '지역'으로 나누는 것도 특정한 원칙이나 규칙보다는 새로운 연구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서 그 구분이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연구', '라틴아메리카 연구', '중국 연구' 등의 세가지 경우를 각기 살펴 보자. 우선 동남아시아는 강대국들이 국제관계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의 하나로 소위 세계지역(a world area)이라 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는 1958~1960년에 이르러서야 널리 인식된 개념으로[2] 여러 민족과 종교·문화를 가진 다양한 나라들을 지칭하며, 인위적으로 구상된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지역은 아시아, 극동, 남아시아, 동구 등이 있다. 다음의 라틴아메리카는 비교적 동일한 문화를 갖는 지역인 문화지역(a cultural area)이다. 이러한 지역에는 근동, 중미, 마야 인디언 지역 등이 있다. 세 번째 '중국 연구'는 단일 국가로서 중요성을 갖는 지역(a nation)이다. 비슷한 경우로 일본, 러시아, 브라질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특정지역(a specific area)이 그 중요성에 따라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Steward, 1950; 矢野暢, 1996에서 재인용).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세계 각 지역에 관한 구분도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의도적으로 분리되거나 무시되면서 자의적으로 분할된 결과의 산물로 볼 수 있다(김경일, 1998a). 세계지역구분의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면 1968년 국제사회과학사전에서는 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소련, 동부유럽, 동아시아(동아시아는 일본과 중국으로 분할되는 경향이 있었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유럽국가에서는 미국연구가 행해지고 미국에서는 카리브제도·서부유럽의 연구가 행해졌다(Wood, 1968). 그로부터 26년 후인 1994년 미국 사회과학연구회(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는 세계지역을 아프리카, 동아시아(한국, 중국, 일본),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중근동,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소연방제국, 서유럽 지역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지역의 구분은 시대에 따라, 구분하는 주체의 인식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뉜다(SSRC, 1993~

1994; 김경일, 1998a에서 재인용).

그러나 지역 구분의 이러한 경향과는 달리 실제 연구에서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경향은 지역연구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을 확립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기존 주류 사회과학에 포함되면서 두드러졌으며, 지역 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함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1950~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지역연구의 전형적인 양식으로 자리잡은 것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김경일, 1998a). 즉 냉전체제에서 국제관계 및 그와 관련된 국익을 고려하여 지역연구를 실시한 미국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연구지역의 규모에 따라 지역연구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크게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전경수, 1992). 우선 '공동체 연구(community study)'이다. 이는 인류학자와 지리학자 혹은 소수의 사회학자들에 의해 실시되어 온 것으로 촌락 또는 마을 사회를 연구의 중심으로 삼는 사례연구들이다. 이는 국제관계의 맥락에서 실시된 지역연구와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지역연구의 새로운 경향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으나 지역연구에서 지향하는 실질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있어 지역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둘째, '지역연구(regional study)'로 도시와 같이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단위나 사회적,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들간의 비교에 의해 각 구역의 사회·역사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셋째, '국가연구(national study)'이다.[3] 이는 제도가 기능하는데 있어 규제가 되는 법이 통용되는 범위와 권력 구조에 의한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와 그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관계의 연구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유형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시행되어 오던 지역연구의 대부분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제관계 중심의 연구는 지역에 관한 문제들을 지나치게 국제정치학이라는 틀 속에 가둠으로써 지역연구를 국제관계라는 하나의 관점으로 좁혀 놓았다. 근래 들어 학제적인 지역연구를 강조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기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조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의 연구는 약간 퇴조하고 있다. 네번째, '문제중심 연구(the problem approach)'이다.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구체적인 주제를 설정하여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연구 경향이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연구자의 전공의 보편적 원리 추구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지역의 의미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의 지역연구에서 국가·지역을 넘어서 범세계적인 범위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문제중심 연구는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3. 지역연구의 발달과 특성

1) 지역연구의 발달 과정

지역연구를 단순히 해외지역에 대한 연구로 정의한다면 그 역사는 그리스·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근세 서양의 여행객이나 선교사, 해외 주재원 등 아마추어들의 해외지역에 대한 보고서, 여행기까지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를 갖는 학문으로서 지역연구가 등장한 것은 20세기에 이르러서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연구의 출발점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나 이는 지역연구가 사회적으로 크게 각광받기 시작한 시기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Hall은 미국에서 이루어진 20세기 초 서구지역 중심의 연구를 지역연구의 시작으로 보았다. 그는 제2차 세계 대전이 지역연구의 출발점이 아니며 오히려 대전의 영향이 전쟁 전의 바람직한 지역연구의 발전을 지체시켰고 또한 전시의 발전방향으로 왜곡시켰다고 비판하였다(Hall, 1947). 또한 Heindel 역시 지역연구의 출발에 대하여 Hall의 견해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1950년 미국 사회과학협의회 대회 보고서에서 당시 미국의 지역연구가 유럽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Heindel, 1950). 그리고 Wheeler는 1910~1929년 사이 미국 지리학계내에서 지역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논문을 통해 밝히기도 하였다(Wheeler, 1986). 김경일은 미국 지역연구의 역사를 지역연구의 前史(1880~1900년), 형성기(1900~1941년), 발전기(1941~1973년), 새로운 정

향기(1973~현재)로 나누고 있으며, 지역연구의 출발을 1920~1930년대 미국 대학내 라틴아메리카 혹은 극동지역 연구소의 설립으로 보고 있다(김경일, 1996).

필자는 지역연구의 발달과정을 시기별 주요 연구지역의 변화를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1900년 경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유럽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를 서구 중심기로, 제2차 세계대전부터 냉전시기까지 제3세계와 러시아, 극동 지역 등 전략적으로 중요시된 나라들이 주로 연구된 시기를 제3세계 중심기로, 1970년대 초반 지역연구의 침체기 이후 지역의 중요성이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를 문제 중심기 혹은 범세계기로 구분하였다.

서구 중심기, 즉 1900년 경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지역연구의 기본개념이 성립된 시기이다. 또한 지역연구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과학 연구의 시야가 서양세계와 미국에 한정되어 있던 때이기도 하다. 당시 지역연구의 목적은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세계, 즉 서구세계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유럽의 국가들 특히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에 대한 역사학, 회화, 지리학, 정치학 등의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당시 유럽과 미국의 학문이 서구세계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그리스와 로마 문화는 서구의 학자나 학생들의 삶의 전통의 근간이 되었으므로 유럽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Hall, 1947). 그 외에 고대 중동이나 서아시아 등 유럽과 관련이 깊은 지역의 언어나 종교, 문화 등에 대한 관심도 대학내에서 고조되었는데 이 또한 자신들의 서구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편의적인 것이었다(Heindel, 1950).

그리고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걸쳐 극동지역과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학부와 대학원 프로그램들이 미시건대학, 캘리포니아대학 등에 설치되었으며 10여개 이상의 아메리카문명·아메리카연구 프로그램들이 개설되기도 하였다(Hall, 1947). 그러나 아직은 선교사업의 일부로서 해외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경향이 강해 지역연구의 중심은 대학 외부에 있었으며 지역연구자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이를 활성화시킬만한 계기가 부족하였다(김경일, 1996).

한편 이 시기에 독일에서는 전쟁 준비를 위해 상당한 양의 지역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그들의 전쟁 수행 과정에서 잘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은 타국에 대한 대중의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보수적인 교육정책으로 인해 지역연구에서 뒤처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영국의 외교정책이 적절히 수립되지 못하였다는 혹평이 제기되기도 하였다(Hall, 1947).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부터 냉전시대를 거쳐 197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을 선두로 한 선진국가들이 제3세계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 시기이다. 또한 지역연구가 주변적 성격으로부터 벗어나 대학과 학술계에서 확고한 자리를 굳힌 때이기도 하다.

이 시기의 지역연구는 다시 크게 전쟁 중과 전쟁 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전쟁 중의 지역연구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제3세계의 언어가능자와 단순한 지역 지식 보유자의 육성을 위해 실시되었다. 이 당시 언어와 지역연구 프로그램은 대학을 기반으로 하고 특정 국가나 지역에 관련된 다양한 분과들의 조사와 강좌를 결합시킨 일종의 통합된 언어강습이었다. 주요 대상 지역은 일본, 러시아, 중국, 북아프리카, 동지중해, 동남아시아, 태평양 제도 등 전쟁과 관련된 지역이었으며 전쟁과는 별반 상관이 없던 중동이나 남미도 주요 지역에 포함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시체제의 지역연구 프로그램들은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어 대부분 사라졌다. 그러나 지역연구는 전쟁 이전과는 달리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었다. 즉 외국에 대한 고립적인 위치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어났다. 또한 당시 서구 학문의 대부분이 유럽·미국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보편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학계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학문들의 전문화·고립화의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연구는 전쟁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발전하기 시작하였다(Hall, 1947).

그러나 당시 지역연구의 발전에 더욱 큰 추진력을 준 것은 세계정세의 냉전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지역연구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국은 러시아 및 제3세계 등 국제적 냉전 관계에서 주요한 국가들이었다. 1946년 미국 대학 내 13개 지역연구 프로그램 중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것이 3개, 극동지역이 4개, 라틴아메리카가 6개였다(Hall, 1947). 1951년 지역연구 프로그램은 전국 28개 대학에 29개로 증대되었는데, 이 중 극동지역 8개, 라틴아메리카 6개, 러시아 5개, 유럽 4개, 동남아시아 2개, 근동 2개, 남아시아 1개, 아프리카 1개로 여전히 극동지역과 라틴아메리카, 러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Bennett, 1951). 이후 지역연구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1954년 미국 대학에 설치된 통합지역프로그램의 수가 55개, 1964년 146개, 1960년대 말 600여 개로 증가하였다(김경일, 1996). 전쟁 이전의 지역연구가 언어연구가 양성에 주력하였던 것과는 달리 전쟁 이후에는 통합프로그램을 지향하여 지역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전까지 특히 미국에서 전성기를 구가하던 지역연구는 1970년대 초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1970년대 들어 시작된 오일 쇼크와 그로 인한 세계적인 불경기로 지역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1973년의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일본의 경우 지역연구의 활성화 내지는 도약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권태환, 1998). 한편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지역연구를 통하여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정치·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던 지역연구 관련 연구자들의 신념을 뒤흔들어 놓았다(Rosenau, 1973). 지역연구에 늘 따라 다니는 "정치의 시녀로서의 지역연구(Cahnman, 1948)"라는 비판이 지역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꺾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냉전 분위기의 완화와 도시·환경 문제 등의 국내 문제의 심화는 일부 분야의 지역연구에 대한 악재(malaise)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분야의 악재는 세계 여러 국가간 관계의 심화와 더불어 다른 분야의 지역연구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이후 지역연구 발전의 새로운 방향이 되었다(Rosenau, 1973). 한편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역연구의 학위수여자는 인문·사회과학계의 30%를 차지하였으며 러시아·동구권의 연구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비해 급격히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연구가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김경일, 1996).

1970년대 이후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생산부문의 초국적 통합,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세계화 경향, 서구적 지배의 종식과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의 도래로 지역연구는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전 시기의 지역연구가 냉전 시대에 국제적 우위를 차지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관계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였던 반면 세계화 시대의 지역연구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내에서 해외의 시장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지역의 경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Moran, 1997).

한편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는 전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지적이고 특정 장소 지향적인 지식과 세계 각 지역의 수평적·수직적 상호 의존성을 결합할 수 있으며, 분리된 각각의 지역들을 지구적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김경일, 1996). 따라서 전통적 의미의 지역연구 대신 변화하는 세계의 현실에서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제안되었다. 즉 전세계 규모의 환경문제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와 경제개혁, 젠더 문제, 국경을 넘어서 감염되고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과 같은 현재의 세계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춘 다수의 초분과적(transdisciplinary), 초지역적(transregional) 위원회들과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조직되고 있다(Koppel, 1995; 김경일, 1996에서 재인용).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특정 지역에서의 연구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그 지역에 통달한 비교적이고 초민족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역연구의 출발을 1990년으로 보고 있다. 그 이전에도 1963년 서울대학교의 동아문화연구소를 시작으로 고려대학교의 아세아문제연구소(1965), 연세대학교의 동서문제연구소(1972) 등 여러 대학 내에 지역연구소가 설치되었으나 대부분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하거나 국외의 경우라도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강하여 지역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였다.

신윤환과 이성형은 199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을 '제1세대 지역연구', 그 이후를 '제2세대 지역연구'로 구분하고 있다. 1980년대 말까지의 '제1세대' 연구는 분과학문의 지식을 갖추지 못한 지역학자들의 '지역학'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대부분이 정치학과 어문학자들이었던 제1세대들의 연구는 당시의 공산권지역이었던 중국과 소련에 집중되어 있었고 비공산권지역 중에서는 중동지역, 일본과 같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했던 지역이 주를 이루었다(신윤환 · 이성형, 1996).

1990년 이후 '제2세대' 지역연구가 발전하게 된 데는 1980년대의 외국 유학 붐으로 인한 유학생의 전반적인 증가, 해외시장의 다각화 모색, 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한 공산권에 대한 관심의 저하, 정부의 지역연구 지원제도 개선과 활성화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요인에 힘입어 지역학 단계에서 지역연구의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과 중국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정치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들의 연구는 현지조사가 뒷받침되지 않는 2차 연구나 비교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역연구자로서의 조건을 갖춘 이들이 상당수 정치학,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등에서 학위를 받고 학계로 진출하고 있다(신윤환 · 이성형, 1996).

2) 지역연구의 특성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역연구는 그 발달과정에서 현실의 상황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은 지역연구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미쳐서, 지역연구는 정책지향적 성격, 학제적 성격, 현장 중시 경향 등의 특성을 갖는다.

첫째, 지역연구는 비교적 국가 정책과 많은 관련을 갖고 발전해 왔다. 이러한 정책 지향적 성격은 지역연구 발전의 추진력이자 동시에 장애요인이기도 하였다. 앞의 발달과정에서 살펴 보았듯이 지역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타 국가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인식되자 본격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오늘날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 정책 수립에 타국의 정확한 정보가 점점 중요해져서 지역연구는 '국가의 공공재'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연구의 발전기에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많은 지역전문가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육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지향적 성격은 '지역연구가 정치의 시녀인가'라는 논의를 불러일으키곤 하였으며 지역연구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지향적 성격은 지역연구의 제국주의적 시각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이는 국제적으로 힘을 가진 국가들이 제3세계 국가를 지배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 수단으로서 지역연구를 장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연구가 '강자의 약자에 대한 연구'로서 제국주의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리엔탈리즘』(1978)의 저자인 Said는 지역연구를 '추악한 신조어'라고까지 하였으며, 야노 토루는 '강한 공간'에 의한 '약한 공간'의 지배를 위한 연구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다(失野暢, 1993).

이러한 면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정부의 비서구권 지역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냉전기 동안 역시 미국에 의해 이루어진 동구권 및 제3세계에 대한 지역연구, 1980년대 후반 이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지역연구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일본이나 미국,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의 독일 같이 전쟁 · 냉전 상황을 통해 세계 질서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강대국에 의해 이루어진 제3세계국 연구가 지역연구의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한 수단으로서 지역연구를 강조하는 것은 지역연구에서 국제 관계의 시각만을 고려하는 것이며 해외지역의 연구를 통해 그 지역과 자신의 국가, 학문분야에 '공헌'을 한다는 신념을 가졌던 많은 수의 지역연구자를 간과하는 것이다. 학문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인간의 필요에 의해 발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면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무리이다.

두번째, 지역연구는 학제적 성격을 지향한다. 이러한 학제성 지향은 점점 더 고립화되어 가고 전문화되어 가는 학문들, 특히 사회과학분야의 학문들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타국가에 대한 지식의 수집이 지역연구의 실

용적 목적이라면 학제성 지향은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지역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지역연구의 학제성 지향에 관한 논의에서 Wallerstein은 19세기 말 사회과학의 학문체계 내에는 세 가지 명확한 선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첫번째는 근대문명세계의 연구와 비근대세계의 연구 사이의 선이었고, 두번째는 근대세계의 연구 내에서 과거와 현재 사이의 선이었으며, 세번째는 법칙정립적 사회과학 학문들 내에서 시장 연구, 국가 연구, 그리고 시민사회 연구 사이의 선이었다. 이들 세가지 간극선은 1945년 이후 모두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지역연구를 통하여 하나의 단일 구조 속에 이들 세 가지 간극을 교차하는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모음으로서 초분과학문적 연구를 시행할 수 있었고, 지역연구가 실행됨에 따라 사회과학 지식을 칼로 자르듯이 제도적으로 분리시킨 데에는 상당한 작위성이 있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하였다(Wallerstein, 1996, 57).

Fenton은 지역연구의 학제성 지향은 20세기 들어 활발히 이루어진 '분과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학문분과들을 통합하기 위한 시도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학제적인 지역연구는 대학의 정규적인 분과 조직을 위협하는 것이며 지역연구의 학제적인 방법론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라고 주장하였다(Fenton, 1947).

학제적 연구란 단순히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함께 연구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Farmer는 지역연구의 학제성 지향 경향에 관하여 경제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 혹은 지리학자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공통 관심이 되는 지역에 대해 각자의 관점을 갖고 연구한다면 그 연구는 다학문적인(multi-disciplinary) 것이 되며 학문간의 장벽을 부수고 아이디어, 방법론, 가설, 연구성과 등의 진정한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학제적인(inter-disciplinary) 연구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Farmer, 1973).

그러나 이러한 학제성 지향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Murdock은 학제적 통합에의 기대를 '환영(illusionary claim)'이라고 일축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진정한 학제적 성과는 둘 혹은 모든 연관 분야에 능통한 사람만이 이룰 수 있으며 한 학자의 지식을 다른 학자의 머리 속에 그대로 옮길 수 없는 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극단적으로 말하기까지 하였다. 그는 다만 지역연구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함께 모음으로서 그들이 협력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고무시킬 뿐이라고 주장하였다(Murdock, 1950).

또한 실제 연구에서 학제적 연구는 각 분과들의 고유한 방법과 이론들을 빌어와서 지역에 적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지역연구가 독자적인 분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전망이 상실된 채 각 학문 분과들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1983년 한 보고서는 지역연구의 학제적 도전은 "미국 대학교육에서 고질적이라고 보였던 학과의 편협성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그것을 구체화하는데는 실패하였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지역연구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있어 분과적 고립들에 의한 지적 노동의 분할을 초월하는 새로운 지식의 종합이나 진정으로 총체적이고 학제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김경일, 1998a).

세번째, 현장, 즉 필드를 중요시하는 경향이다. 지역연구는 문헌연구 뿐 아니라 현장답사를 통한 실증주의적 연구를 특성으로 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현장답사를 중시한 지리학에서는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여타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새로운 점이다. 또한 이러한 필드 중시 경향은 연구 데이터를 중요시하는 경향까지도 포함한다.

여타 과학 특히 순수과학에서 연구 대상물과 데이터는 이론, 법칙, 연구성과 등을 얻기 위해서만 중요할 뿐 이들을 얻은 후에는 무시되고 잊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는 연구가 이루어진 지역의 특성을 무시해서는 완전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한 예로서 Murdock은 프로이트의 분석대상이 되었던 비엔나의 중·상류층과 볼리비아 빈촌의 원주민들간 꿈의 상징은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하였다(Murdock, 1950).

이러한 특성은 분과학문들이 내포하고 있던 유럽중심주의에 대한 도전과도 관련이 깊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여러 분과학문들의 발달과정에서 관찰대상은 대개가 유럽 내지는 미국의 서구국가들이었다. 이에 대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학, 사

회학, 심리학 및 정치학 등의 분과학문들은 서구문화의 산물이며, 그것이 기반을 두고 있는 개념 도식은 서구의 사상과 제도의 산물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지역연구에서 해외지역과 비서구문화에 대한 관심은 보편적 사회과학의 발전을 위한 자연스럽고 진보적인 단계라는 것이다(Wagley, 1948; 김경일, 1998b에서 재인용). 또한 Steward는 서구 산업 사회에 대한 연구로부터 발전된 전통적 방법들을 기반으로 한 과도한 분과체제들의 지식은 더 이상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지역연구를 통한 총체적 지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teward, 1950; 김경일, 1998b에서 재인용).

4. 지역연구와 지리학과의 관계

1) 지역특수주의와 분과보편주의

지역연구자란 "특정 학문분과가 요구하는 이론적·방법론적 분석능력과 전공 지역 또는 국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현지조사 연구능력을 겸비한 자"이다(신윤환·이성형, 1996). 또는 지역연구자 혹은 지역전문가란 자신의 전문가적 경력(professional career)의 일부분이나 전부를 세계의 다른 지역의 연구에 바치는 사람을 말한다(Lambert, 1990).

지역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분과학문에 대한 학습과 학위가 필요하다. 분과학문은 지역을 연구하는데 있어 방법론과 전제, 문제를 보는 시각을 제공하여 준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관심지역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언어능력이 기본이 된다. 언어 능력은 지역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기본 수단으로 그 수준은 해당 지역에 관한 자료를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광범위한 사실적 지식, 현지 경험 등이 지역연구자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다(Bennett, 1951, 4; Lambert, 1990).

이렇듯 지역연구자는 분과학문에 대한 지식과 지역에 대한 전문성, 양자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역시 지역연구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측면-분과학문과 지역-이다. 지역연구자 혹은 지역연구라는 학문이 분과학문과 지역 중 어느 분야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과 대립은 지역연구의 태동 이후 계속되었는데, 이는 지리학에서의 지지연구와 계통지리의 연구 두 분야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라는 논쟁과 비슷한 양상을 띄었다. 분과보편주의는 지역보다는 전공 분과의 보편적 이론 수립에 중점을 두는 관점으로, 분과보편주의자들은 지역연구를 전문분야의 이론적 검증을 위한 방편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이들에게 지역연구의 목적은 분과학문 이론의 보편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반면 지역특수주의란 관심 지역에 대한 연구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두는 관점으로, 지역특수주의자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하여 분과학문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나아가 방법론의 측면에서 지역특수주의의 개성기술적(idiographic) 방법과 분과보편주의의 법칙정립적(nomothetic) 방법 간의 관계로 이어졌다.

이들 두 가지 관점은 협력보다는 갈등관계가 짙었는데, Rosenau는 양측이 서로를 존중하기보다는 경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그들간의 상호작용이 협동적이기도 하지만 자주 경쟁적인 것이 된다고 보았다. 즉 지역특수주의자들은 분과보편주의자들의 연구가 깊이를 결여하고 있으며 지역에 대한 불충분한 인식으로 인해 부적절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으며, 반면 분과보편주의자들은 지역특수주의자들에 대해 균형잡힌 견해가 부족하고 의미있는 설명을 유출해 내는데 있어 지역의 상세한 사항에 너무 연연한 나머지 이를 정당화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한다는 것이다(Rosenau, 1973). 이 또한 지리학 내에서 이루어진 지역지리학과 계통지리학 간의 갈등과도 비슷하다.

이러한 분과보편주의와 지역특수주의의 양상은 인문학적 성향이 강한 학문들과 사회과학적 성향이 강한 분과들간에도 그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나아가 지역연구에서 각 분과 학문들이 차지하는 비중의 경중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계량화의 경향이 적고 기술적인 성향이 강한 인류학과 역사학, 언어와 문학 혹은 정치학 등의 분과는 연구와 강의 양측면에서 모두 지역 특정적인 분과들로 많

은 지역연구의 핵심을 이루었다. 이로 인해 지역연구는 인문학적 사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이에 반하여 정량적이고 이론 지향적인 성격이 강한 학문들, 예를 들어 경제학이나 사회학 등에서는 특정지역을 전공하는 것에 대해 지적인 편견을 갖거나 분과 내에서 지역전공자를 보다 열등한 서열에 놓는 경향까지 있었다(김경일, 1998). 이들 분과들에서는 지역연구자들이 고립되거나 '이등 서열'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연구의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였는데 이는 지지연구에 대한 지리학 내의 시선과 비슷한 양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이후 지속된 학문의 분과화 경향과 과학화의 추구는 학문 전반에 걸쳐 지역특수주의보다는 분과보편주의가 우위에 설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지역연구의 주요 주제로 부각된 문제 중심 연구에서는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자의 전공의 보편적인 원리 추구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여 지역연구 내에서 분과보편주의가 주요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과보편주의의 우위로 인해 지역에 대한 전문성과 분과학문의 지식을 적절히 결합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분과보편주의의 편협성을 극복해 나가고자 했던 지역연구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많은 수의 지역연구 성과들이 좁은 분과, 대부분이 단일 분과내에서 이루어지게 된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분과보편주의의 우위에 대해 矢野暢는 지역연구가 분과 학문(major)의 이론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minor)으로서 전락하였다고 혹평하며 지역이 주가 되는 지역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矢野暢, 1993).

2) 지역연구와 지리학

그 개념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역연구와 지리학 양자는 지표 위의 일정한 공간 즉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리고 지역연구가 학제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역시 학제적 성격이 강한 지리학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Wheeler의 연구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지역연구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이미 미국 지리학계내에서는 지역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이전에 발표된 지리학 연구물들을 페터슨의 네 가지 전통에 따라 구분하였다. 그 결과 주요 지리학 저널들에 실린 연구물 중 지역연구(area studies tradition)[4]의 비율은 1910년에서 1919년까지는 48.54%, 1920년에서 1929년 사이에는 58.58%로 네 가지 전통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1904년부터 1929년까지의 AAG 연례학술대회에서의 발표 논문 중 비율도 31.73%에 이르러 38.37%를 차지한 Earth Science 다음으로 높았다. 게다가 1893년부터 1935년까지 미국내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된 연구물 중 지역연구의 비는 63.0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Wheeler, 1986).

그러나 지역연구의 본격적인 태동 이후에는 언어학과 정치학, 인류학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지리학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과거의 사회과학자들은 지리학 중에서 오직 자연지리학만이 지역연구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까지 하였다(Ullman, 1953).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발달한 지역연구의 특수한 상황, 사회과학자들의 지리학에 대한 인식의 부족 뿐 아니라 지리학 내에 지역연구를 발전시키는데 장애가 된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리학 내의 요인들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Schaefer의 예외주의에 대한 비판 이후 나타난 지리학 내의 패러다임 변천(Paradigm shift)의 영향이다. Schaefer는 Hartshorne의 영향을 받은 미국 지리학이 지역의 고유성(uniqueness) 추구를 고집한 나머지 일반법칙의 정립을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Schaefer, 1953). 이는 기술과학으로서의 지리학의 측면, 특히 지지연구의 유용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으며 지리학이 구축해 온 지역개념에 대한 경시와 지지연구에 대한 배격의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지리학의 학제성은 계속해서 희박해졌고 지리학은 지역연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다. 坪內良博은 "지리학이 전반적인 서술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찾기 시작하여 전문분야로서의 자립성을 주장하게 되자 그 총합성은 자연히 희박하게 되었다.… 지리학이 더듬어 갔던 과정은 학문 분화의 과정에 놓여졌고

이윽고 총합적 기술이라고 하는 의미로의 지리학의 존속자체를 위태로운 것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藤原健藏, 1997).

다음으로는 지리학 내에 수리·계량화의 도입과 이에 따른 필드의 경시 풍조를 들 수 있다. 계량혁명 이후 계량화를 통한 모델의 정립에 몰두하는 풍조가 지리학 내에 일면서 세련되지 못하고 논문작성도 어려운 필드워크는 점점 지리학자들에게서 소홀히 취급되었다. 이러한 필드의 경시는 지역(area)이 연구의 주요 대상인 지역연구로부터 지리학을 점점 멀어지게 하였다. 지리학에서의 이러한 필드 경시의 풍조에 대하여 川喜多二郎은 "진리의 권위는 현장의 테마에 있다"고 하는 기본적 관점으로 되돌아오고, "야외연구의 체험을 체계를 세우고 전통화하는" 작업을 착실하게 쌓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藤原健藏, 1997). 또한 Farmer는 "지역에 의한 전문화(dedicated specialization by area)"를 강조하며 지지연구의 재생을 위해서는 지역연구에의 철저한 몰두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Farmer, 1973).

또한 지리학은 전통적으로 지역을 연구해 온 학문으로서 그 연구물에 대하여 지지연구(regional geography)와 지역연구(area studies)를 엄밀히 구분하기 어렵다. 즉 해외지역에 대한 지지연구는 지역연구와 지지연구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혼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는 지리학이 지역연구에 대하여 갖는 장점이자 단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다른 사회과학 분야와는 달리 지리학에서는 계속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다. 때문에 특별히 지역연구(area studies)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도 지리학이 꾸준히 지역을 연구해 왔지만 지역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지리학내의 경향과 비슷하게 우리 나라 지리학계에서도 지리학이 지역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없었다. 특히 우리 나라 지리학에서는 전체 연구에서 지역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은 편이다. 우리 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주요 지리학술지[5]에 발표된 해외연구 논문은 1963년부터 1995년까지 총 46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960년대에 3편, 1970년대 7편, 1980년대 14편, 1990년대 22편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1980년 이후 발표된 논문이 36편에 이른다. 그리고 이들 전체 46편 중 8편만이 자연지리학 논문이고 나머지 38편이 인문지리학 논문이었다. 46편의 논문을 다시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을 연구지역으로 한 논문이 총 24편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독일이 4편, 중국·일본·구소련이 각각 3편씩이었으며 프랑스와 이태리가 각각 1편씩이었다. 그리고 여러 나라를 비교연구한 논문이 7편이었다(Hyong, 1997).

미국에 대한 편중이 심한 이유로는 국내 지리학자 중 다수가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점과 영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 보편성을 지니는 점,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밀접한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가까운 이웃이며, 중국과는 달리 수교기간이 길고, 다수의 지리학자가 유학하였으며 영어 다음으로 그 언어가 보편적인 일본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특수한 관계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유럽지역에 관해서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에 그 연구가 국한되었으며 이베리아 반도국가나 동부·북부유럽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나아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와는 달리 전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정치·경제·사회적인 면에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에 지리학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연구의 영역도 영어권 중심을 벗어나 차츰 여러 나라로 분산시켜야 한다.

이렇듯 우리 나라 지리학에서 지역연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하여 지리학계 내외의 환경과 지리학자의 요인 두 가지 측면의 이유를 고려할 수 있다. 지리학계 내외의 환경과 관련해서는 우선, 우리 나라에 현대적 의미의 지리학이 정착한 것이 1960년대인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이 시기에 지리학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지역지리학을 예외주의라 비판하여 실증주의에 기초한 이론 지리학이 강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우리 나라 지리학의 토대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개성기술적 방법을 잡다한 지식을 모아놓은 여행 기록으로 폄하하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나 맞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은 대학에

서의 지지교육의 경시풍조로 이어졌으며 이는 나아가 지리학에서의 지역연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다(Hyong, 1997). 셋째, 해외지역연구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는 1980년대 말에야 해외여행 자율화가 실시되어 그 이전에는 일반인의 해외여행이 어려웠으며 이는 지리학자들이 해외지역을 연구하는데 큰 장애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해외 지역연구의 현지조사비용이 국내연구에 비해 매우 많이 드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지역연구가 발달한 국가들은 대부분 지역연구에 대한 민간 및 정부의 재정적 지원하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해외지역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지리학의 지역연구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리학자의 요인으로는 우선 지리학자들의 관점과 관련된 것으로 지리학의 연구영역을 우리의 국토에 한정하는 '국수주의적 관점'과 이론화를 통한 설명에 집착하는 관점을 들 수 있다(이전, 1998). 둘째, 국내 지리학자들이 갖는 한계점을 들 수 있다. 지리학은 다른 사회과학에 비하여 연구자의 수가 적다. 이러한 수적 열세로 인해 지리학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둘 수 없었으며 이는 지역연구에서의 부진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언어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지리학에서 행하는 많은 지지연구는 영어 문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연구가 지지연구와 다른 점은 현지 언어로 씌어진 자료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현지 경험을 통해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쉽게도 국내 지리학자 중에는 영어를 제외한 현지 언어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의 장애로 인해 현장 연구에 어느 분야보다도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지리학자의 지역연구가 부진하였다고 본다.

지리학이 지역연구의 기본 학문의 하나가 되어야한다고 Fenton(1947)이 주장한 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리학자의 연구는 타분야 학자의 그것과는 구별될 수 있다(Fenton, 1947). 예를 들어 경제지리학자는 농업, 광업과 다른 생산품의 여러 측면, 공업 입지와 발전, 유통 경로의 흐름, 도시와 농촌의 취락 등 경제학자가 다루지 못하는 지역관련 문제를 다룰 수 있다(Ullman, 1953).

특히 지리학은 기본적으로 공간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서 지역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데, 우선 공간 상호작용을 가시화하는데 지도를 이용하고, 해석하고, 편집할 수 있다. 지도를 통한 지역의 분석능력은 지리학자가 가진 고유한 능력이며 최근 GIS의 발달은 이러한 능력을 더욱 배가시키고 있다. 둘째, 지리학자는 자세하고 기술적인 답사를 통해 현장을 조사하고 이를 지도화할 수 있다. 지역연구는 특히 현장에서의 조사가 주요한 방법인데 지리학자의 답사능력은 또 다른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지리학자는 지역간의 물자·교통·사람들의 흐름과 기원지·목적지 등을 측정하여 지역간의 연계성을 밝힐 수 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그로 인한 전세계적인 생산체계의 형성, 정보와 자본의 흐름의 증대는 지역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물리적인 측정만으로는 지역간의 연계성을 밝히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과거의 정태적인 지역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의 변화하는 지역간의 관계를 밝히는 지역연구에서 지리학의 이러한 면이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넷째, 지리학은 지역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주제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지역을 인식하고 구획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지역은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는 인지개념이며 이에 대한 인식과 구획은 지역연구의 주요한 연구과제 중의 하나이다. 지리학은 지역성의 구명을 위한 연구를 다수 실행해 온 학문으로서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다른 학문보다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지리학은 다른 학문에서 인식해온 것처럼 자연환경의 역할을 측정할 수 있다. 이는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의 양자를 통한 지역의 총체적 접근을 가능케 한다. 현재 환경문제와 이상기후문제 등은 전지구적인 차원의 지역연구로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리학의 기여 가능성은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다(Ullman, 1953).

5. 요약 및 결론

지역연구는 '타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타자

성'에 대한 해명과 이해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지역 인식 방법이다. 그 연구대상인 지역은 연구자에게는 '이국의' 것인 특정지역으로 작은 구역부터 몇 개의 나라들로 이루어진 국가군까지 다양하다. 지역은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달리 구분될 수 있는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인식개념으로 세계 지역의 구분도 시대적 상황과 정세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지역은 하나의 국가에 한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지역연구는 20세기 초 유럽을 주요 연구지역으로 하여 시작되었으며 이후 세계 제2차대전과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제3세계를 중심 대상지역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안정기 내지 정체기를 맞은 후 국제화 시대를 맞아 세계 각 지역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리고 학문간 분리·고립화 경향에 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다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전의 지역학 시기를 거쳐 지역연구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역연구는 크게 정책지향적 성격, 학제적 성격, 현장 중시의 경향 등의 특성을 갖는다.

지역연구자는 지역학자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지역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과학문에 대한 학습과 학위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관심지역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언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광범위한 지식을 더하여야 전문적인 지역연구자가 될 수 있다. 이에 지역연구에서는 분과학문과 지역 전문성의 균형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근래 나타난 분과보편주의의 우위에 대한 지역연구 내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연구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20세기 초에는 지리학 내에서 지역연구의 전통이 우세하였으나 Schaefer의 예외주의에 대한 비판 이후 대두된 지지연구의 유용성에 대한 비판과 수리·계량화 도입에 따른 필드 경시의 풍조 등으로 인해 지리학은 지역연구로부터 멀어져 갔다. 아울러 국내 지리학계에서도 지역연구에 대한 뚜렷한 성과가 없었고, 연구도 미국을 중심으로한 영어권에 집중되었다. 중국·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독일을 제외한 유럽국가 및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지역연구의 활성화 및 연구지역의 다변화가 시급하다. 지리학자는 지도와 GIS 사용, 현장 조사, 지역간 연계성의 파악, 지역성의 구명, 자연환경의 역할 측정 등의 지리학자 고유의 능력으로 인해 지역연구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리학은 지역연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며 다수의 지역연구자들이 인류학과 함께 지리학을 지역연구를 이끌어갈 주요 학문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학계 내부의 경향과 외부의 여건으로 인해 여타 사회과학 분야에 그 중심적인 위치를 내주어야 했다. 요즈음 지리학내에서 다시 지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지역지리학, 나아가 지역연구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註

1) 본고에서 사용하는 '지역연구'라는 용어는 모두 '해외지역연구'의 준말이며, 본고에서 지리학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온 지역연구는 regional studies 라는 해설을 덧붙이기로 한다.
2) 영어권 문헌에서 "동남아시아"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39년 보스톤에서 간행된 미국인 성직자 말콤(Malcom, H., 1839)의 『동남아시아 여행기(*Travels in South-Eastern Asia*)』이며, 동남아시아의 학문적 용례는 영국인 인류학자 로건(Logan, J. R., 1847)이 『인도군도와 동아시아지(*The Journal of the Indian Archipelago and Eastern Asia*)』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동남아시아는 1983년 이전까지 극동 혹은 중동의 참고 조항이 있다(Emmerson, D. K., 1984, 문현아 譯, 1998, 97).
3) 1960년대 말 이후 사회 분석을 위한 사회·지리적 단위로서 국가를 덜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라는 제도는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과정들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한 연구는 국가의 제반 기제들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Wallerstein, 1996, 114).

4) Wheeler가 정리한 area studies tradition에는 해외의 명확한 구분 없이 지역을 다룬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1973년 Chicago 대학에서 열린 지역연구에 관한 지리학자들의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에 근거하면 당시 다수의(1935년 AAG 발표 논문 136편 중 35편이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 관한 논문) 논문이 국내 지역뿐 아니라 해외지역에 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Mikesell, 1973, iv).

5) 분석대상으로 삼은 주요 저널은 대한지리학회지, 지리학논총, 지리교육논집 등이다.

文獻

권태환, 1998, 우리 나라 지역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상섭·권태환편,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지역연구 총서

김경일, 1996, "전후 미국에서 지역연구의 성립과 발전," 지역연구, 5(3), 223-268.

_____, 1998a, "지역연구의 대상과 방법,"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문학과학사.

_____, 1998b, "지역연구의 정의와 쟁점들,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문학과학사.

박삼옥, 1992, 지리학에서의 지역연구, 우리 나라 지역연구 현황·문제점·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지역연구 종합센터.

신윤환·이성형, 1996,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국가전략, 2(1), 155-187.

야노토루(矢野暢), 1993, 지역연구란 무엇인가, 야노토루 엮음·아시아경제연구회 옮김, 지역연구의 방법, 1997, 전예원.

월러스틴, 이매뉴얼 외, 이수훈 옮김, 1996, 사회과학의 개방, 당대.

이전, 1998, 지리학과 해외지역연구, 이상섭·권태환편, 한국의 지역연구-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지역연구 총서.

전경수, 1992, 지역연구의 개념과 방법론, 우리 나라 지역연구 현황·문제점·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지역연구 종합센터.

한국외대대학원 지역학연구회, 1996,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藤原健藏 編, 1997, 地域研究法, 朝倉書店.

Bennett, W. C., 1951, *Area Studies in American University*, New York: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Cahnman, W. J., 1948, Outline of a theory of area studi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38(4), 233-243.

Emmerson, D. K., 1984, Southeast Asia: What's in a Name?, 문현아 譯, 1998,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문화과학사.

Farmer, B. H., 1973, Geography, area studies and the study of area,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60(Nov.), 1-15.

Fenton, W. N., 1947, *Area Studies in American University*,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Washington D.C.

Hall, R. B., 1947, *Area Stud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ir Implication for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Heindel, R. B., 1950, *The Present Position of Foreign Area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A Post-Conference Report*, Committee on World Area Research-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Hong, C., 1997, Regional planning and area studies in Korea,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Symposium on Geography and Area Studies*, Korean Geographical Society.

Hyong, K. J., 1997, Foreign area research of korean geographers: retrospects and prospects,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Symposium on Geography and Area Studies*, Korean Geographical Society.

Lambert, R. D., 1990, Blurring the disciplinary boundaries: area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3(6), 712-732.

Mikesell, M. W.(ed), 1973, *Geographers Abroad: Essay on the Problems and Prospects of Research in*

Foreign Areas, The University of Chicago Department of Geography Research Paper no.152,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oran, W., 1997, Geography and area studies: towards a pacific perspective,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Symposium on Geography and Area Studies*, Korean Geographical Society.

Murdock, G. P., 1950, The conceptual basis of area research, *World Politics*, 2(4), 571-578.

Rosenau, J. N., 1973, *International Studies and the Social Sciences: Problems, Priorities and Prospects in the U.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Schaefer, F. K., 1953, Exceptionalism in geography: A methodological examinati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43, 226-249.

Ullamn, E. L., 1953, Human geography and area research,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43, 54-66.

Wheeler, J. O., 1986, Notes on the rise of the area studies tradition in U.S. geography, 1910-1929, *Professional Geographer*, 38(1), 53-61.

Wood, B., 1968, Area studies, in Sills, David L.(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1, 401-407.